

<b>주가</b>	<b>환율</b>	<b>금리</b>
-10.09	-2.80	-0.01
1,422.63 (코스피지수)	955.60원 (원/달러)	5.0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702.96	(-1.61)
다우(14일)	11,137.65	(+7.68)
나스닥(14일)	2,326.11	(+11.43)
닛케이	17,008.88	(-224.94)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30엔	(-0.22)
유로 달러 환율	1,218.1달러	(-0.0073)
3년만기 회사채	5.31%	(-0.02)
클레리	3.96%	(보합)

## aT, 수출 물류비 5억7,000만원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신광수)는 1·4분기 동안 관내 전남무역 등 15개 농산물 수출업체에 5억7천2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aT는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실류·화훼류·감치류·인삼류 및 축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 농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모색해오고 있다.

신광수지사는 "1월 2억7천300만원, 2월 1억3천600만원, 3월 1억6천3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이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은 업체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이 825만불로 관내 농축산물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매달 10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실적을 공사홈페이지(<http://www.at.or.kr>) 고객지원시스템에 신청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문의(062)944-4747.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기청, 여성기업 창업지원 확대 시행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여성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청 주관아래 총 16개 부처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8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창업지원 ▲여성전문분야 창업트레이닝 강화 ▲체계적인 여성창업 멘토링제도 운영 ▲여성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속적 공급추진 등이다.

특히 여성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1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창업 5년 이내 여성기업은 보증료를 0.1% 감면받게 된다. 또 118개 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지난해 1조9천억원에서 올해 2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50.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전체 여성의 48.7%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계기로 여성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열린경영이 선진노사 관계 만든다”

### 이기권 광주노동청장 ‘여성 경제인 포럼’ 강연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추구해야”

#### 본사·여성경제인협 공동 주최

광주지방노동청은 올해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노동행정 구현의 해’로 지정하고 ▲미래지향형 노사관계 구축 ▲고용서비스 선진화 실현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주최한 ‘제16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이기권 광주지방노동청장은 ‘2006년 노동정책 방향’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청장은 “우선 미래지향형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미들업다운(Middle-Updown)’ 방식을 추진하되

사업주측의 열린 경영, 노사협의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 임금모델 개발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노사간 변화에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재해율을 지난해보다 0.03% 감소한 0.85%,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0.09% 줄인 1.09로 목표를 잡았다.

이 청장은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산재 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대형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작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주지방노동청은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 확대, 유·사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지원확대, 직장보육시설 지원확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 점검, 기업인력 채용지원 등을 적극 지원해 고용경쟁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이 청장은 “경쟁력있는 기업은 CEO가 변화를 즐기고 매사에 예비 가시시키고 같은 열정을 지녀야 한다”면서 “이같은 노사관계 리더들의 실천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능자”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광주·전남지회 회원과 광주지방노동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 16회 여성경제인 포럼 참가자들이 17일 이기권 광주지방노동청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 외지손님에 대접하고 싶은 남도음식?

## 1위 한정식·2위 세발낙지

외지 손님에게 대접하고픈 남도음식은 한정식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혜양조(대표이사 임근우)가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352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보혜 홈페이지를 통해 ‘외지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남도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한정식이라고 대답한 비중이 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발낙지 22%, 흥어삼합 17%, 떡갈비 15% 등의 순을 보였다. 이밖에 굴비정식이 3%, 생선회와 한우생고기 각각 3%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한정식에 대해 ‘남도만의 맛과 정, 정성이 가득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맛갈스런 반찬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니 귀한 손님 모시기에 제격이다’, ‘한정식 한 상이면 남도음식은 다 맞든 거나 다르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商議-중기협중앙회 ‘밥그릇 싸움’

### 두단체, 회원 가입 ‘상의법’ 개정안 놓고 갈등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업회원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상회의가 회원가입 임의제 시행유예를 통해 회원 강제가입을 당분간 지속시키려 하자 중기협이 중소기업들을 대한상의 회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공회의소법 개정 추진**=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당연가입제인 대한상의 회원가입을 임의가입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1~2012년으로 4~5년 연기하는 방안을 담은 상공회의소법 개정안 2개를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회원가입이 임의제로 바뀌면 회원 및 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회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상의는 회원 및 회비 감소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기협은 중소기업의 상의 강제가입은 개별업체에 부담을 주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단체 선택권을 박탈한다며 상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 ‘빈축’=대한상의 가입의가입제로 전환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추가 법률개정을 통해 강제가입을 지속하려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중기협이 상의 회원강제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상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체 회원확대나 확보가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중기협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대한상의 회원가입 여부보다는 중기협이 회원사들에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금융민원 Q&A

서민 맞춤대출 '이지론'

Q:어떤 절차 통해 서비스 받나?

A:사이트 접속하면 820개 상품 안내

Q: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운영자금으로 1천만원이 급히 필요한 김 모씨는 친구로부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A:한국이지론(주)은 서민들의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이지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지론 서비스는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등 9개권원 316개 금융회사 820여개의 다양한 대출상품 중에서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받을 확률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검색, 안내해주고 있다.

이지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 한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316개의 금융회사를 한꺼번에 둘러보는 효과가 있다. 돈이 급하다고 고리사채를 이용하려는 사람, 보다 낮

은 금리로 바꾸고 싶은 사람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당한 불법 수수료나 신용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 걱정없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먼저 인터넷에서 한국이지론([www.egloan.co.kr](http://www.egloan.co.kr))에 접속한 후 ①회원가입 ②가입 및 연소 등 신청정보 입력 ③본인 확인 ④추천상품 검색 ⑤대출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 과정에서 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서비스 활성화에 의해 지난 12일부터 국민은행 등 15개 시중 은행 전 지점에서 무료 이용권을 배포하고 있다.

한편 대출안내를 받았다고 해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국번없이 1332)

# 호남예술제

전남의 문화의 고장인 호남에서 / 문화의 향연과 예술의 향연

▶ **신청기간** | 2006년 4월 10일(화) ~ 14일(토)

▶ **신청방법** | 인터넷: [www.kwangju.or.kr](http://www.kwangju.or.kr) / 전화: 062-944-4747

▶ **신청처** |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 **문의처** | 문화재단 기획팀 / 전화: 062-944-4747

▶ **주최** | 광주일보

▶ **주관** | 문화재단

▶ **후원** | GS

▶ **주최** | 문화재단

▶ **주관** | 문화재단

▶ **후원** | GS

▶ **주최** | 문화재단

▶ **주관** | 문화재단

▶ **후원** | GS